

기본연구보고서 2016-01

# 대전지역 중소기업 성장동인 분석과 정책방향

**김 기 희**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연구개요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지역 기업의 구성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중간규모 기업군과 대기업이 취약한 침탑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최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기업 규모별 증가 추이를 보면, 여전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종사자 200명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역경제의 역동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이 활발하고 이들 기업들이 중기업,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현상일 것이고, 이에 지역의 기업들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육성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였고, 더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동인을 찾아 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또는 대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연구 내용

### ■ 기업 규모별 구성과 변화(2005~2014년, 10년간)

#### □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 ○ 전산업

- 전산업 전체 증가업체 중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 규모별로는 1~4명 규모의 소기업이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수 대부분이 1~4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증가.
- 그러나 구성비는 대기업에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 특히 1~4명 규모에서 2.51%p 크게 감소

##### ○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증가업체 중 중소기업이 99.7%를 차지. 규모별로는 1~4명 규모와 5~9명 규모의 소기업이 각각 51.2%, 40.0%로 91.2%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사업체수 대부분이 1~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증가
- 그러나 구성비는 대기업에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 특히 1~4명 규모에서 3.17%p 크게 감소

#### □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 전산업

- 전산업 전체 종사자수 변화에서는 사업체수 변화에서와 같이 사업체가 적은 규모일수록 종사자수 증가가 큰 현상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구성비는 주로 중기업과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가 감소함.

##### ○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 변화 역시 사업체수 변화에서와 같이 사업체가 적은 규모일수록 종사자수 증가가 큰 현상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구성비는 주로 중기업과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제조업에서도 발견됨.
- 평균 종사자수
  - 전산업의 평균 종사자수 0.59명 증가, 제조업은 0.63명 증가
  - 규모별로 전산업은 대기업 41명 증가, 중기업 0.72명 감소, 소기업 0.23명 증가, 중소기업 전체로는 0.43명 증가
  - 규모별로 제조업은 대기업 28.8명 증가, 중기업 0.28명 감소, 소기업 0.26명 증가, 중소기업 전체로는 0.45명 증가
  - 중소기업이 규모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 기업의 특성(2005~2014년, 10년간)

### □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특성(KISVALUE Data)

- 평균업력 - 2005년 11.1년에서 2014년 14.1년으로 증가
- 종업원수 - 총종업원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1기업당 종사자수 역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14년 소폭 증가
- 자본금 - 총자본금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1기업당 자본금은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세
- 매출액 - 총매출액은 2006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1기업당 매출액 역시 2009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증가세
- 수출액 - 총수출액은 2012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들어 대폭 감소한 이후 이전의 수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1기업당 수출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영업이익 - 총영업이익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 들어 회복세, 1기업당 영업이익 역시 동일한 추

세를 보임

- 평균 부채비율 - 2006년, 2010년, 2012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 증가, 다만 최근 2013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
- 교육훈련비 - 2010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

□ 계속 및 신규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특성(KISVALUE Data)

- 평균업력 - 2005년 이전부터 계속중견기업이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보다 긴 것으로 분석됨
- 평균종사자수 - 계속중견기업은 2005년 이후 기업체수가 동일한 가운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의 경우는 규모가 작았던 중소기업이 매년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평균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음.
- 평균자본금 - 계속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규모가 작았던 중소기업의 매년 신규 진입에 따라 평균자본금의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평균매출액, 평균수출액, 평균영업이익 - 비교적 규모가 적었던 중소기업이 매년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신규중견기업은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의 증감 변화가 없는 계속중견기업의 경우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평균수출액의 경우 계속중견기업도 2013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14년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중견기업의 평균영업이익도 200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평균부채비율 - 2007년까지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간 다소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격차가 매우 소폭인 가운데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평균교육훈련비 - 비교적 규모가 큰 계속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규중견기업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군 모두 평균교육  
훈련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향후 종업원의 숙련도 축적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요구됨.

## ■ 실증분석 결과

### □ 업력

- 2005년 이전부터 중견기업이었던 계속중견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업력과 양(+)  
의 관계,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들의 유의성 없음
  - 업력이 높은 기업보다 업력이 낮은 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Jovanovic(1982)과 Evans(1987)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
  - 2005년 이전부터 중견기업이었던 기업이 오랜기간 대전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로는 장정호  
(2004)의 연구가 있음
  -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차이 없음

### □ 규모 : 종업원수, 자본금

-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이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  
두 음(-)의 관계
- 자본금은 계속중견기업은 성장과 음(-)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양(+)  
의 관계
  - 기업의 성장과 규모 간의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이론에서 모든 기업들이 U  
자 모양의 장기평균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규모간에 음(-)  
의 상관관계는 최적규모 영역 근처에 있는 대전지역 계속중견기업의 성장  
률은 둔화될 것인 반면, 최적규모 영역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이 신  
규중견기업으로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란 이론과 부합하는 것임.
  - 대전의 계속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최적규모에 도달해 있는 반면, 신규중견  
기업은 아직 최적규모에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면서 성장을 위해 자본  
금 보유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차이 없음

□ 성장성 : 매출액, 수출비율

- 매출액 성장이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양(+)의 관계를 가짐.
  -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을 의미
  -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차이 없음
-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비율 확대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전지역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수익성 :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계속중견기업은 양(+)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음(-)의 관계
  - 영업이익이 확대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으로 안정적 단계의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경영활동 지속함
  - 신규중견기업은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정성 :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부호는 음(-)의 관계
  - 이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함. 그러나 기업 규모가 큰 중견기업은 신뢰도가 높고 자본조달이 용이하여 자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하여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져 부채비율과 양(+)의 관계가 예상됨. 그러나 대전 중견기업들은 부채비율과 추정계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석결과로 볼 때, 대전지역 기업은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력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는 중견기업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계속중견기업은 양(+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계속중견기업은 교육훈련비 투입 증대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중견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이 경우 기업 성장을 위한 요소투입 중에서 교육훈련비 투입에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3. 정책방향

□ 기업의 업력 관련

-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고 경영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존립하게 해야 할 것임. 특히 창업에서 도약·성장기 중소기업이 흔히 겪게 되는 2차 3차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보완해야 할 것임.

□ 기업이 규모 관련 : 종업원수, 자본금

- 아직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의 경영이익 축적을 통하여 자본금 규모를 확장하게 하거나 비용절감이나 생산효율화를 통해 최적규모 영역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이는 물론 수익성이나 성장성 등 관련 경영지표 등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 성장성 관련 : 매출액, 수출비율

-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액 성장을 위한 판매촉진과 마케팅 등의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지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역제품 해외 제품설명회 개최 확대, WTA 등을 통한 지역기업이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국제 무역 및 통상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익성 관련 : 영업이익

- 최근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규중견기업으로 이행 성장한 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단계에 있는 계속중견기업보다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안정성 관련 : 부채비율

- 대전지역 중견기업들은 부채비율의 추정계수가 매우 낮고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볼 때, 기업의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영다각화에 의한 다양한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채권의 차입에 따른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술력 관련 : 교육훈련비

-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숙련도 향상과 노동생산성이 증대될 있도록 종업원당 교육훈련비를 일정비율 부문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수토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특히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영세 규모의 소기업은 기존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만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육 받는 기간만큼 임시 인력 지원이나 전문가 집단의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6
1. 연구의 방법 .....	6
2. 연구의 구성 .....	6
<b>제2장 중소기업의 성장과 선행연구</b> .....	<b>11</b>
제1절 중소기업 성장이론 .....	11
제2절 선행연구 .....	13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성장현황 .....	13
2. 기존 연구 .....	14
3. 중소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 .....	19
<b>제3장 대전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b> .....	<b>29</b>
제1절 중소·중견기업의 분류 .....	29
제2절 기업규모별 구성과 변화 .....	32
1.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	32
2.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35
제3절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특성 .....	40
<b>제4장 분석모형과 실증분석</b> .....	<b>45</b>
제1절 분석모형과 변수 .....	45
1. 분석모형 설정 .....	45

2. 이용자료의 기술통계적 특성 .....	48
제2절 실증분석 결과 .....	54
<b>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 .....</b>	<b>63</b>
제1절 연구결과 .....	63
제2절 정책방향 .....	67
<b>참고문헌 .....</b>	<b>69</b>

## - 표 목 차 -

<표 3-1>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30
<표 3-2> 업종별 규모기준 .....	31
<표 3-3> 대전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	33
<표 3-4> 대전의 제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	34
<표 3-5> 대전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36
<표 3-6> 대전의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37
<표 3-7> 대전의 기업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38
<표 3-8> 대전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Ⅰ) .....	41
<표 3-9> 대전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Ⅱ) .....	41
<표 4-1> 이용자료의 표본 특성 .....	49
<표 4-2> 계속중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	51
<표 4-3> 신규중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	51
<표 4-4>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계속중견기업(Ⅰ) .....	55
<표 4-5>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계속중견기업(Ⅱ) .....	56
<표 4-6>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Ⅰ) .....	57
<표 4-7>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Ⅱ) .....	58

## - 그림 목 차 -

<그림 3-1> 제조기업의 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39
<그림 3-2> 1기업당 종사자수 .....	42
<그림 3-3> 1기업당 자본금 .....	42
<그림 3-4> 1기업당 매출액 .....	42
<그림 3-5> 1기업당 수출액 .....	42
<그림 3-6> 1기업당 영업이익 .....	42
<그림 3-7> 평균부채비율 .....	42
<그림 4-1> 평균업력 .....	52
<그림 4-2> 평균종사자수 .....	52
<그림 4-3> 평균자본금 .....	52
<그림 4-4> 평균매출액 .....	52
<그림 4-5> 평균수출액 .....	52
<그림 4-6> 평균영업이익 .....	52
<그림 4-7> 평균부채비율 .....	53
<그림 4-8> 평균교육훈련비 .....	53

# 제 1 장

---

##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배경

대전지역 기업의 구성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중간규모 기업군과 대기업이 취약한 침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기업 규모별 증가 추이를 보면, 18,710개 증가하고, 중기업은 423개, 대기업은 36개 증가하여 여전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력 20년 이상의 기업 중 소기업 수준에서 기업의 비중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200명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기희, 2013).

지역경제의 역동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이 활발하고 이들 기업들이 중기업,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현상일 것이다. 이에 지역의 기업들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육성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한 기업들에서 성장동인을 찾아 그 해당 요인들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가져오는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였고, 더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 시 중견기업은 기존의 혜택이 축소되고 새로운 규제가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거나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중견기업 정책추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동인이 무엇이고 또 효과적인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동인을 찾아 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규모가 확대되는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 규모의 분포가 지금보다 중간 규모의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의 구조적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이 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장동인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인 중소

기업 정책의 시각이 아니라 최근 선진국(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최근 이병기(2013)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5인 이상의 전체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의 규모분포를 분석하는 한편, 이중 기업규모 간 이동을 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을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시도한다.

기업성장 요인을 검토할 경우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Evans(1987)모형을 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 자료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짓모형을 응용하여 기업규모 간의 성장동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실증연구가 이병기(2013)의 연구가 있기 전까지는 매우 일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것이다.

###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관한 논의의 내력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주로 중소기업의 장애 및 제약현상을 확인하는 연구, 중소기업의 동태적 측면에서의 성장요인을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몇 가지 경영지표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이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먼저 대전 중소기업의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별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구성과 변화를 2005년에서 10년 후인 2014년까지 통계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다음으로 대전의 중소기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NICE신용평가의 KISVALUE Data에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추출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기업체수, 평균업력,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평균부채비율, 교육훈련비)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이행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설명한 후, 변수별 이용자료의 기술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후, 업력, 기업규모(자본금, 종업원수), 성장성(수출비율, 매출액), 수익성(영업이익), 안정성(부채비율), 기술력(교육훈련비) 변수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

### 중소기업의 성장과 선행연구

---

제1절 중소기업 성장이론

제2절 선행연구

---





## 제 2 장 중소기업의 성장과 선행연구

### 제1절 중소기업 성장이론

기업의 성장에 대한 논의는 신고전주의적 관점에서의 최적규모를 모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Penrose는 ‘성장의 경제성(economies of growth)’ 과 기업에 대한 ‘자원 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 에서 기업 성장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Marris는 기업의 관리적(managerial) 관점에서 성장에 접근하였으며, 진화론적 접근에서는 ‘적응기업의 성장(growth of the fitter)’ 의 관점으로 다루었다(Alex Coad, 2009).

기업 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기업규모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패턴에 적지 않은 상이점이 존재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패턴은 대기업의 성장 패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그들의 성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반면, 최소효율 규모 이상인 대기업들에게는 생존, 성장, 이윤 등의 목적이 분리되고 상충되기도 한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그들보다 큰 경쟁기업들에 비해서 작은 규모 자체가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생존이 규모에 의존하는 것처럼 확장을 시도한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최소효율규모보다 큰 기업들에 비해 비용 면에서 불리함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성장이라는 목표가 생존 및 이윤의 추구하고 일치하게 되며, 확장에 필요한 자금 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비해 높은 평균 성장률을 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연혁이 오래된 기업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젊은 기업, 대기업과 오래된 기업은 각각 매치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성장에 관한 연구는 기업 규모 및 성장률 분포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성장이 기업의 규모와 독립적이라는 Gibrat(1931)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 및 재확인 또는 반박하는 등, 주로 성장과 규모 간의 관계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Javanovic, 1975 ; Evans, 1987 ; Audretsch et al, 2004)

기업의 규모와 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가운데, 기업의 나이(Geroski and Gugler, 2004), 혁신(Gardern, 2005), 금융(Coad, 2007), 생산성(Baily and Farrell, 2006), 소유권 구조(Fagiolo and Luzzi, 2006), 산업특정성 요인들(Audretsch, 1995), 거시경제적 요인들(Davis et al., 2006) 등과 기업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에 따라 분석의 초점이 다르고 결과 또한 특정 요인들 간의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의 대상과 활용 데이터 등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CEO가 한다는 점과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구별되기도 한다. 대기업은 보다 안정성을 누리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을 계획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Coad, 2006), 중소기업은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Javanovic, 1982; Hopenhayn, 1992; Ericson and Pakes, 1995; Pakes and Ericson, 1998).

## 제2절 선행연구

###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성장현황

#### 1) 김주훈(2005) 연구

김주훈(2005)은 연구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대기업이 된 기업이 적다는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1993년에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는 14,315개로서 생존율이 25.3%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300인 이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개(0.01%)에 불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아 중소기업 성장장애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사업체조사결과를 기초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업체로 이루어진 기업체의 경우 다소의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있으나,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적다는 현실을 처음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IBK경제연구소(2011.7)

IBK경제연구소(2011.7)의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신중견기업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건설업·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 분야까지 분석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면 1만 2,036개 업체 중 171곳(1.42%)만이 최근 11년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 3) 중소기업연구원(2015.9)

중소기업연구원(2015)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장애요인을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우선 성장절벽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중소기업 또는 유예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율이 5.3%만큼 더 낮음을 밝히고 있다<sup>1)</sup>. 부채비율 효과에 관해서는 부채비율의 증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 비율이 일정수준(1.24)을 초과하면 성장 장애요인이 됨을 분석하고 있다<sup>2)</sup>.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전년도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비회원일 경우 회원일 경우에 비해 그 다음 해의 매출증가율이 4.2%만큼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기존 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성장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지적하였 듯 이처럼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동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최근 이병기(2013)의 첫 시도가 있기까지는 국내연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성장제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 기업성장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제시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국내의 실증분석 연구는 2000년 이후는 주로 분석대상을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

1) 이와 관련하여 엄부영 외 2명(2014)은 지원 축소와 규제 추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의 경우 다음 해에 매출성장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병기(2013)의 연구도 부채비율의 증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러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없는 편이고 더구나 지역별 차원의 접근도 거의 시도되지 않는 실정이다.. 분석방법도 대부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성장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홍석일 2012).

## 1) 국내연구

중소기업의 동태적 성장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이인권(2002)은 1991~2000년 기간 중의 제조업 외감법인 자료를 이용하여 Evans(1987)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나이가 증가하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성장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Gibrat법칙<sup>3)</sup>은 성립하지 않고 Jovanovic가설<sup>4)</sup>은 성립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성효용(2000)은 1993~1997년 기간 중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률과 기업 규모 및 나이와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기업성장과 규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정진하(2005)는 2004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가공한 3,082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은 기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성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대(2007)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299인 규모의 기업의 기업규모 하락추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sup>5)</sup>하였다.

박연숙(2007)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DB에서 추출된 2000년~2005년까지 생존한 10인 이상 서비스업 4,8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장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전체와 지식기반 중소서비스기업군 모두 기업의 규모와 성장성은 역의 관계

---

3) Gibrat(1931)은 미국의 수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7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는 현재의 기업 규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덩치가 크고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생존할 확률은 거의 같다는 것이 바로 Gibrat의 법칙이다.

4) Jovanovic(1978)는 연구에서 기업의 성장과 업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5)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 경영전략, 장애요인 등을 설문하였다.

에 있고,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규모가 성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Gibrat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업력과 성장성간의 관계는 서비스업 전체는 정의 관계, 지식기반 중소기업은 역의 관계로 나타남과 함께 창업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성장률이 더욱 높았고 서비스기업 전체보다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률이 더욱 높았다.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은 모두 기업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화·서정대(2009)는 중소기업과 그 이상 규모의 기업을 포함한 6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 한 결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환경 여건, CEO 및 기업의 내부적 특성, 기업의 전략 등 요인들이 기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경영환경 여건 중에서는 국내경기, CEO 및 기업의 특성 중에서는 CEO의 역량과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전략 중에서는 수출과 브랜드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룹별로 규모가 작을 경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지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에서 경영환경 여건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기(2009)는 1991~2005년간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성장 요인을 분석하여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발전 등 금융 발전이 기업성장을 가져다주는 중요 요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나 은행 발전 등 금융 발전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발전은 전통기업에서보다는 첨단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일(2011)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DB에서 추출한 2000년 소기업과 2011년 소기업과 중기업 1,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소기업이 아직 영역별 전문적인 분화가 덜 진행되어 최고경영자, 운영, 정부지원정책의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특히 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소기업 성장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에서 업력이 짧은 기업의 성장성이 높고, 외부 네트워크에서는 산학연 협력, 외부

인력개발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내부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들이 중소기업 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문·윤현진(2012)은 2002~2004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한 29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세 가지 성장유형(중견기업도약군, 중소·중견변동군, 중소기업정체군)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력이 짧고 유예기간 당시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영업이익률도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법적 기준을 빠른 속도로 돌파한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출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병기(2013)는 2001~2011년까지의 기업규모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R&D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성장해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단기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오히려 기업성장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 2) 해외연구

중소기업 성장에 관한 해외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와 경영자적 특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이후(80년대)의 연구들은 소유경영자의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경영, 조직, 외부환경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면 연구설계에 의존하여 상관관계 분석 또는 단기간의 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이나 집단간 비교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홍석일 2012).

Brown, Earle and Lup(2004)은 루마니아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외부 자금의 이용가능성이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고 조세부담 증가가 기업성장을 억제한다는 분석결과를 얻고 있다.

Lopez-Garcia and Punte(2011)은 상대적 임금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고속성장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인간자본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성장 기업을 1로 하고 저성장기업을 0으로 하는 프로빗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Harabi(2005)은 양질의 노동자·경영자가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규제가 있는 경우 기업성장이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면서 매출액 성장률을 3분하여 양의 성장률을 나타낸 경우 3, 성장률이 불변인 경우 2, 음의 성장률을 나타낸 경우 1로 하는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업나이, 기업위치, 법적형태, 혁신능력, 제품다각화정도, 시장구조, 시장수요, 규제·정책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최근 Rubini et al(2012)의 연구는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음. 이들은 유럽 7개국의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혁신비용이 높은 데 기인하며 스페인의 경우는 높은 무역비용과 높은 혁신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려면 혁신을 촉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반면 스페인은 무역비용을 낮추고 국제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혁신비용을 낮추면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평균적으로 혁신비용 1%의 감소는 기업성장을 약 1.2%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된 반면, 무역비용 1% 감소는 기업성장을 약 0.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이 혁신을 하는 데 따르는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성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실증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의 관점에서 성장을 분석하고 있으며, 재무적 변수나 고용변수로 측정한 성장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주로 중소기업의 범위 내에 속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가는데 동일한 영향요인들이 그대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박상문·윤현진 2012)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연구기간동안 성장성과 같은 성과변수 차이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며,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의 법적지위 변화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기준을 경계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의 성장과 영향요인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3. 중소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개별 요인들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전략 내에 있는 요소들은 일단 기업활동이 시작될 경우 어떠한 경영적인 판단과 행위가 보다 빠른 성장과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본금, 매출액, 수익, 종업원수, R&D투자, 교육훈련투자, 시장 및 제품의 차별화,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수출비중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종업원수, 수익, 매출액 등이 성장 변수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들 중에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1) 기업의 규모와 업력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기업의 초기 규모와 성장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한 Gibrat의 법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Gibrat(193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의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기업의 성장률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동일하다는 법칙을 주장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은 Gibrat 법칙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는 시도들에서 기업의 성장과 규모간 부(-)와 정(+)의 관계를 분석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Gibrat의 법칙은 도전받게 되었다.

Gibrat의 법칙과 불일치를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Jovanovic(1982)로 그는 학습모델을 통해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업력까지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Jovanovic는 업력이 높은 기업보다 업력이 낮은 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Jovanovic(1982)는 기업성장의 동태적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 및 잔존률이 기업연령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산출량이 관리적 비효율의 블록 감소함수(decreasing convex function of managerial inefficiency)일 경우 기업성장은 기업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sup>6)</sup>, 이는 신생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Evans(1987)는 Gibrat의 법칙을 기업이 규모와 업력은 기업의 성장과 부(-)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Evans의 연구결과 이후 기업의 규모, 업력과 기업의 성장과의 관계는 부(-)의 관계임이 일반적인 가설로 인식되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업력이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률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장정호(2004)<sup>7)</sup>의 추정결과는 기업의 성장속도와 연령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성효용(2000), 72쪽

7) 장정호(2004), 89쪽

## 2) 기업규모와 성장률의 관계

기업성장론에서 업력과 규모가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다.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두 가지 주류 이론이 있다. 하나는 Gibrat의 법칙 (Gibrat's Law)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자산의 성장은 기업규모와 상관이 없다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Jovanovic의 주장으로 양자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종합하자면 기업의 업력과 성장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음의 관계라는 주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양분되는 반면, 기업규모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아마도 소속산업, 대상기업의 규모분석기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이론은 특정산업내의 모든 기업들은 동일한 U자 모양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성장률과 기업규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최적규모 영역 근처에 있는 대규모 기업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인 반면, 최적규모 영역 아래에 있는 소규모 기업은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성장률과 기업 규모와는 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각종 기업자료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정호(2004)<sup>8)</sup>는 기업성장과 기업규모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소규모의 성장률이 대규모기업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적인 U자형의 장기평균비용곡선에서 규모의 경제영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은 소규모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최적 규모에 도달할 때 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최적규모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빠른 성장속도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8) 장정호(2004), 88쪽

## 2)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과의 관계

기업성장과 기업규모 및 연령 외에 경영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경우 대체로 수익성과 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수익성이란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일정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매우 높은 기업은 내부자금에 의한 자본조달이 용이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비율을 가질 것으로 수익성이 높을수록 낮은 부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성장률과 수익성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기업의 성장률과 부채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특정현금흐름 수준을 가정하면 투자를 위한 외부자금의 의존도를 높여야 하므로 기업성장과 부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경영을 다각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수익력이나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의 차입에 대한 자본비용이 저렴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높은 부채비율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질 것으로 대규모기업에서 기업의 성장률과 부채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신수철(1972)은 재무, 생산 및 판매정책이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라 분석하였고, 특히 재무측면에서 자기자본으로만 조달하는 경우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재무구조와 기업의 성장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장정호(2004)<sup>9)</sup>의 추정에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부채의 추정계수 부호가 정(+)으로 나타나 기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내부유보자금 뿐만 아니라 부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의 추정계수가 상당히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 기업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

9) 장정호(2004), 91쪽

내부자금과 부채를 이용하여 투자한 사업의 매출규모를 증가시켰을지라도 수익성이 낮아 수익성의 추정계수 값이 작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개발과 성장

기술개발이 기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이기 때문에 기술적 네트워크를 잘 갖춘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강점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술수준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기술수준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행 연구가 존재 하는데, 주로 둘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다. 주요 연구결과들은 자본집약적인 공장과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의 성장이 빠르며 실패할 확률도 낮다는 것이다. 반대로 큰 공장일수록 보다 새롭고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채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Kelly and Brooks(1991))도 있다.

이 외에 연구개발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다. Garcia-Manjon and Romero-Merino(2012)는 연구개발집약도가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고성장 기업들과 고위 기술부문에서 확인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김정호·김민서(2014)는 연구개발집약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2002~2011년까지의 1,270개 기업들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매출증가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여러 기술수준 지표를 사용한 바와 같이 기업의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R&D비용, 연구부서의 규모, 특허권 숫자, 연구 부서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와 인용도, 기술 로열티 수입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R&D 활동에 관한 투입요소(R&D input)이고, 일부는 산출요소

(R&D output)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KISVALUE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매출액 대비 R&D비용, 즉 R&D 집약도(R&D intensity)를 대리변수로 사용 가능하다.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은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나머지 자료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4) 해외 수출과 성장

해외시장으로의 판로인 기업의 수출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시장에 비해 어려운 측면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수출과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해외 수출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Lu and Beamish(2006)는 1986~1997년까지의 164개 일본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활동이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정호·김민서(2014)가 2002~2011년까지의 1,270개 중견기업들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활동이 중견기업의 매출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5) 종업원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종업원 숙련도는 노동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박연숙(2007)은 노동생산성이 기업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종업원의 임금수준과 성장과 관련해서는 Lazear(2000)는 종업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미국 Safelite 자동차 유리 제조 및 수리회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주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진배 외 2명(2004) 역시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제도가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1999년과 2000년 각각 215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면 매출성장률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종업원 재직기간과 성장과 관련해서는 Auer et al.(2005)는 종업원의 재직기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연구로 13개 유럽 국가들의 1992년과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의 재직기간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순희(2010)는 종업원의 재직기간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2007년 사업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의 재직기간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성장 관련한 연구도 있다. Artz(2010)는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1996~2004년까지의 24,090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늘리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서 노동생산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군오·임응순, (2014)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2000-2011년까지의 171개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늘리면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제 3 장

---

### 대전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

---

제1절 중소·중견기업의 분류

제2절 기업규모별 구성과 변화

제3절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특성

---



## 제 3 장 대전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

### 제1절 중소·중견기업의 분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중견기업의 법적인 정의는 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크게 두 가지, 즉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표 3-1>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NICE평가정보의 KISVALUE 데이터에는 중소기업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2005년과 10년 후의 변화를 고려한 2014년의 분석기간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의 분류는 <표 3-2>의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3-1>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적용 업종	●모든 업종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만 해당
주업종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상한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산총액 5천억 원, 자기자본 1천억원, 매출액 1천억원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 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 제외
유예 기간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은 허 용)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 에 한함)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창업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 2014.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조특법 상 중소기업기준 개정(「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된 업종별기준 준용, 상한기준 중 상시근로자수·자기자본 폐지)

〈표 3-2〉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 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자료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2016년 현재), 중소기업청

## 제2절 기업규모별 구성과 변화

### 1.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 1) 전산업

대전지역 전산업의 총사업체 수는 2014년 현재 109,535개인데, 10년 전인 2005년 보다 19,169개, 21.2%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기업규모별 증감을 보면, 대기업은 36개 증가하여 45.6%, 중기업은 423개 증가하여 51.3%, 소기업은 18,710개 증가하여 20.9% 각각 증가함으로써 중기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대기업, 소기업 순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 증가업체 중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증가업체 중에서도 1~4명 규모의 소기업이 71.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 수 대부분이 1~4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대기업에서는 300~499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높지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500~999명 규모의 사업체보다 더 많이 증가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순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체수 증가 추세는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체 등으로 발전하였거나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폐업 또는 신규창업 증가에 의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로 어느 요인으로 증가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요인으로 증가하였든 대전지역 사업체는 10년 전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은 대전지역 전산업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 변화를 보면 더욱

---

10)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여러 기업군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고, 소기업 중에서도 더욱 작은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동시행령 제8조에서 상시근로자 수 50명을 기준으로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진다. 2005년 대비 2014년 사업체 구성비가 대기업은 0.02%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02%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1~4명 규모는 2.51%p로 구성비가 대폭 감소한 점이 전체 중소기업 구성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성비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신규창업 또는 기존 소규모 기업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 대전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단위 : 개, %)

전산업	2005		2014		증 감 (2014-2005)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증감률
중소기업	90,287	99.9	109,420	99.9	19,133	21.2
- 소기업	89,463	99.0	108,173	98.8	18,710	20.9
1~4명	77,128	85.4	90,737	82.8	13,609	17.6
5~9명	7,716	8.54	10,982	10.0	3,266	42.3
10~19명	3,038	3.36	4,226	3.86	1,188	39.1
20~49명	1,581	1.75	2,228	2.03	647	40.9
- 중기업	824	0.91	1,247	1.14	423	51.3
50~99명	573	0.63	848	0.77	275	48.0
100~299명	251	0.28	399	0.36	148	59.0
대기업	79	0.09	115	0.10	36	45.6
300~499명	33	0.04	57	0.05	24	72.7
500~999명	32	0.04	35	0.03	3	9.4
1000명 이상	14	0.02	23	0.02	9	64.3
합계	90,366	100.0	109,535	100.0	19,169	21.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2) 제조업

대전지역 제조업 총사업체 수는 2014년 현재 7,438개인데, 10년 전인 2005년보다 910개, 13.9%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기업규모별 증감을 보면, 대기업은 3개 증가하여 25.0%, 중기업은 33개 증가하여 26.0%, 소기업은 874개 증가하여 13.7%

각각 증함으로써 중기업과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체 증가업체 중 중소기업이 99.7%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증가업체 중에서도 1~4명 규모와 5~9명 규모의 소기업이 각각 51.2%, 40.0%로 총 91.2%를 차지하고 있어 대전지역 제조업의 사업체 수 증가의 대부분이 1~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1개 증가한 반면, 500~999명 규모의 사업체가 1개 감소한 점과 소기업에서 10~19인 규모의 사업체가 감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순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4> 대전의 제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단위 : 개, %)

제조업	2005		2014		증감 (2014-2005)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중소기업	6,516	99.8	7,423	99.8	907	13.9
- 소기업	6,389	97.9	7,263	97.6	874	13.7
1~4명	5,037	77.2	5,503	74.0	466	9.3
5~9명	720	11.0	1,083	14.6	363	50.4
10~19명	422	6.46	408	5.49	-14	-3.3
20~49명	210	3.22	269	3.62	59	28.1
- 중기업	127	1.95	160	2.15	33	26.0
50~99명	82	1.26	100	1.34	18	22.0
100~299명	45	0.69	60	0.81	15	33.3
대기업	12	0.18	15	0.20	3	25.0
300~499명	5	0.08	8	0.11	3	60.0
500~999명	5	0.08	4	0.05	-1	-20.0
1000명 이상	2	0.03	3	0.04	1	50.0
합계	6,528	100.0	7,438	100.0	910	13.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이러한 사업체수 증가 추세 역시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체 등으로 발전하였거나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폐업 또는 신규창업 증가에 의한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대전지역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 변화를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2005년 대비 2014년 사업체 구성비가 대기업은 0.02%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02%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1~4명 규모는 3.17%p로 구성비가 대폭 감소하고 10~19명 규모는 0.98%p 감소한 점이 전체 중소기업 구성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명 규모와 10~19명 규모를 제외한 규모에서 제조업 역시 신규창업 또는 기존 소규모 기업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1) 전산업

대전지역 전산업의 총 종사자는 2014년 현재 556,297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150,986명, 37.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수 증감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가 29,275 증가하여 54.3%, 중기업이 40,126명 증가하여 50.2%, 소기업이 81,585명 증가하여 30.0% 각각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변화에서와 같이 종사자수 변화에서는 사업체가 적은 규모일수록 종사자수 증가가 큰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000명 이상 규모에서의 종사자수 증가가 300~999명 규모에서의 종사자수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체의 증가에 따라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 증감을 보면, 주로 중기업과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1~4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4.80%p의 구성비 감소를 보인 점이 전체 중소기업 구성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0~999명 규모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신규창업 또는 기존 소규모 기업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에 따라 종사자수 구성비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5> 대전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단위 : 명, %)

전산업	2005		2014		증감 (2014-2005)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중소기업	351,417	86.7	473,128	85.0	121,711	34.6
- 소기업	271,501	67.0	353,086	63.5	81,585	30.0
1~4명	135,949	33.5	159,883	28.7	23,934	17.6
5~9명	48,625	12.0	69,464	12.5	20,839	42.9
10~19명	40,000	9.87	55,526	10.0	15,526	38.8
20~49명	46,927	11.6	68,213	12.3	21,286	45.4
- 중기업	79,916	19.7	120,042	21.6	40,126	50.2
50~99명	38,844	9.58	57,134	10.3	18,290	47.1
100~299명	41,072	10.1	62,908	11.3	21,836	53.2
대기업	53,894	13.3	83,169	15.0	29,275	54.3
300~499명	12,941	3.19	22,235	4.00	9,294	71.8
500~999명	21,502	5.31	23,673	4.26	2,171	10.1
1000명 이상	19,451	4.80	37,261	6.70	17,810	91.6
합계	405,311	100.0	556,297	100.0	150,986	37.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2) 제조업

대전지역 제조업의 총 종사자는 2014년 현재 58,590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11,264명, 23.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수 증감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가 2,511명 증가하여 29.4%, 중기업이 3,326명 증가하여 25.6%, 소기업이 5,427명 증가하여 21.0% 각각 증가하였다.

제조업부문의 종사자수 변화 역시 사업체가 적은 규모일수록 종사자수 증가분이

큰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500~999명 규모에서 923명이 감소하고 10~19명 규모에서 2명이 감소한 점과 1~4명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 증감을 보면, 전산업에서와 같이 주로 중기업과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제조업에서도 발견된다. 500~999명 규모에서 2.95%p, 50~99명 규모에서 0.03%p 감소하였으나 대기업과 중기업 구성비는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으나 10~19명 규모에서 2.26%p, 1~4명 규모에서 2.16%p 감소하여 소기업의 구성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 구성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위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조업에서도 역시 신규창업 또는 기존 소규모 기업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에 따라 종사자수 구성비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6> 대전의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단위 : 명, %)

제조업	2005		2014		증 감 (2014-2005)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중소기업	38,796	82.0	47,549	81.2	8,753	22.6
- 소기업	25,823	54.6	31,250	53.3	5,427	21.0
1~4명	9,382	19.8	10,348	17.7	966	10.3
5~9명	4,595	9.71	7,134	12.2	2,539	55.3
10~19명	5,566	11.8	5,564	9.50	-2	0.0
20~49명	6,280	13.3	8,204	14.0	1,924	30.6
- 중기업	12,973	27.4	16,299	27.8	3,326	25.6
50~99명	5,546	11.7	6,846	11.7	1,300	23.4
100~299명	7,427	15.7	9,453	16.1	2,026	27.3
대기업	8,530	18.0	11,041	18.8	2,511	29.4
300~499명	1,894	4.00	3,261	5.57	1,367	72.2
500~999명	3,391	7.17	2,468	4.21	-923	-27.2
1000명 이상	3,245	6.86	5,312	9.07	2,067	63.7
합계	47,326	100.0	58,590	100.0	11,264	23.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3) 평균 종사자수

대전지역 전산업과 제조업의 평균 종사자수 변화를 보면, 2005년 대비 2014년까지 10년간 전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0.59명, 제조업은 0.63명 증가하여 기업당 종사자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산업 평균 종사자수 변화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41명 증가, 중기업은 0.72명 감소, 소기업은 0.23명 감소하여 중소기업 전체로는 0.43명이 증가함으로써 주로 대기업에서 기업당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감소하거나 1명 미만으로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규모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대전의 기업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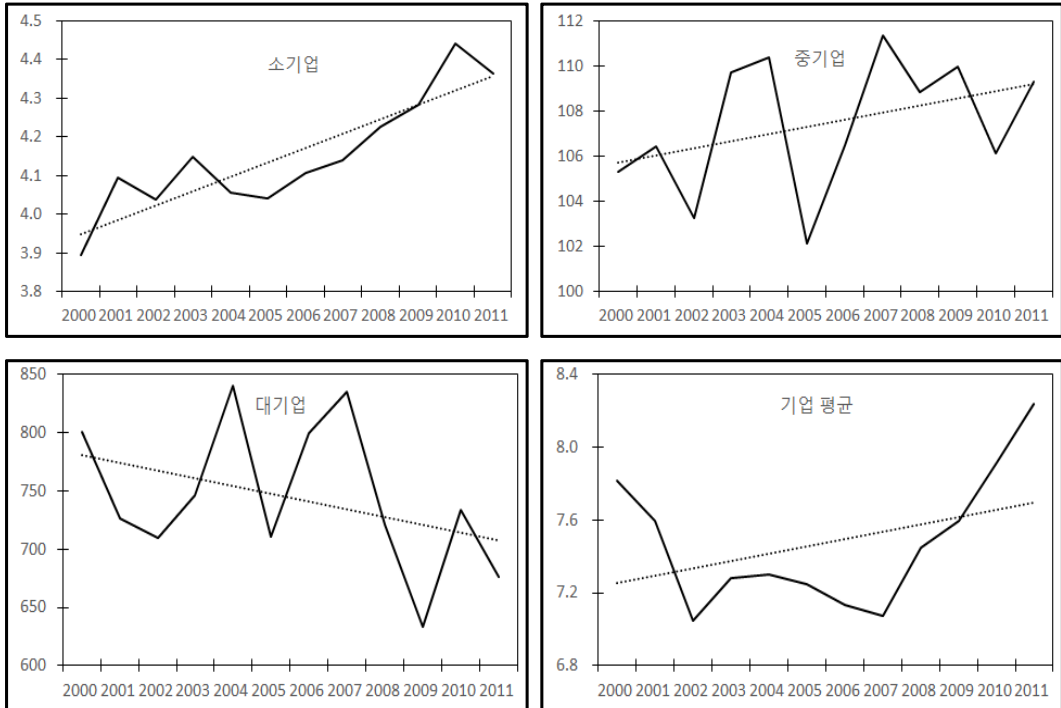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전산업			제조업		
	2005	2014	증감 (2014-2005)	2005	2014	증감 (2014-1005)
중소기업	3.89	4.32	0.43	5.95	6.41	0.45
- 소기업	3.03	3.26	0.23	4.04	4.30	0.26
1~4명	1.76	1.76	-0.00	1.86	1.88	0.02
5~9명	6.30	6.33	0.02	6.38	6.59	0.21
10~19명	13.2	13.1	-0.03	13.2	13.6	0.45
20~49명	29.7	30.6	0.93	29.9	30.5	0.59
- 중기업	97.0	96.3	-0.72	102.1	101.9	-0.28
50~99명	67.8	67.4	-0.42	67.6	68.5	0.83
100~299명	163.6	157.7	-5.97	165.0	157.6	-7.50
대기업	682.2	723.2	41.0	710.8	736.1	25.2
300~499명	392.2	390.1	-2.06	378.8	407.6	28.8
500~999명	671.9	676.4	4.43	678.2	617.0	-61.2
1000명 이상	1,389.4	1,620.0	230.7	1,622.5	1,770.7	148.2
합계	4.49	5.08	0.59	7.25	7.88	0.63

다음으로 제조업의 평균 종사자수 역시 대기업에서 28.8명 증가한 반면, 중기업에서는 0.28명 감소하고 소기업에서는 0.26명 증가에 그쳐 전산업에서 발견된 중소기업에서 규모의 영세성이 제조업 부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3-1> 제조기업의 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단위 : 명)



### 제3절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특성

위 <표 3-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의거하여 KISVALUE Data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대전지역 기업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Data로부터 추출한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별 통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지역 기업의 개략적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005년 당시 Data상의 외부감사를 받은 대전지역 기업은 226개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까지 104개 업체가 증가한 330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업의 평균업력은 2005년 11.1년에서 2014년 14.1년에 이르고 있다.

종업원수는 기업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1기업당 종사자수도 추세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2013년 대폭 감소하였고 2014년 소폭 증가하였다. 자본금 역시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기업당 자본금은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매출액은 2006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기업당 매출액 역시 2006년과 2009년이 감소하였으며, 다만 최근 2012년 소폭 감소한 바 있으나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12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들어서는 대폭 감소한 이후 이전의 수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1기업당 수출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들어 회복세를 보였고, 1기업당 영업이익 역시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2006년, 2010년, 2012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2013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비는 2010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

는 가운데 좀처럼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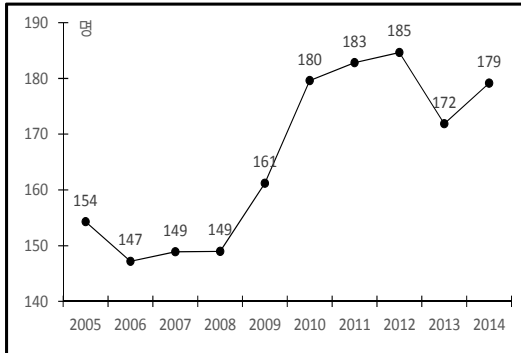
<표 3-8> 대전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I - KISVALUE Data)

연도	기업수(개)	평균업력(년)	종업원수(명)	자본금(십억)	매출액(십억)
2005	226	11.1	34,874	3,165.2	11,110.0
2006	240	11.4	35,326	2,645.5	10,573.8
2007	240	11.5	35,734	2,698.2	13,323.8
2008	258	11.6	38,436	2,788.1	15,668.2
2009	268	11.5	43,200	2,851.3	15,057.5
2010	277	11.9	49,750	3,359.6	18,577.1
2011	294	13.0	53,749	3,486.0	21,252.7
2012	308	13.3	56,873	3,535.8	21,894.8
2013	322	14.1	55,340	3,618.8	22,916.8
2014	330	14.0	59,120	3,698.6	24,0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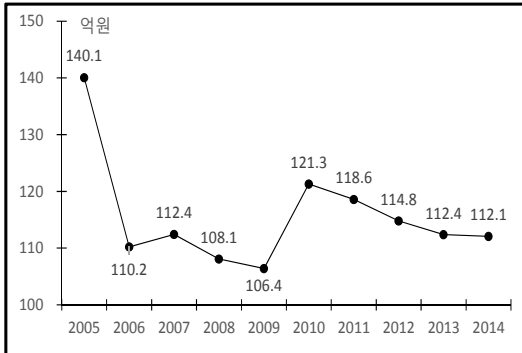
<표 3-9> 대전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II - KISVALUE Data)

연도	수출액(십억)	영업이익(십억)	평균부채비율(%)	교육훈련비(십억)
2005	1,453.0	1,307.1	391.7	13.6
2006	1,681.6	1,364.5	1,186.9	13.3
2007	1,870.7	1,535.9	781.3	16.2
2008	2,287.8	1,694.7	428.7	16.3
2009	2,247.8	1,909.7	493.9	13.5
2010	3,121.7	2,060.2	1,492.9	19.2
2011	3,520.5	1,990.3	539	16.6
2012	4,033.2	1,909.8	1,804.5	17.4
2013	2,211.7	1,842.6	871.7	13.2
2014	2,638.7	2,026.1	726.3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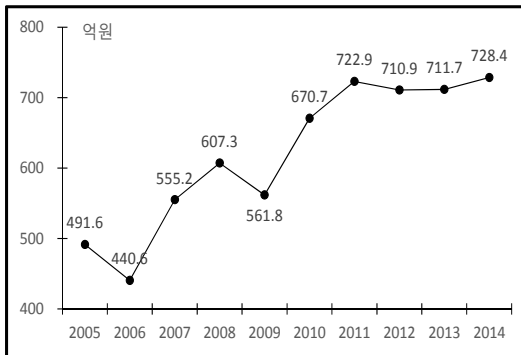
<그림 3-2> 1기업당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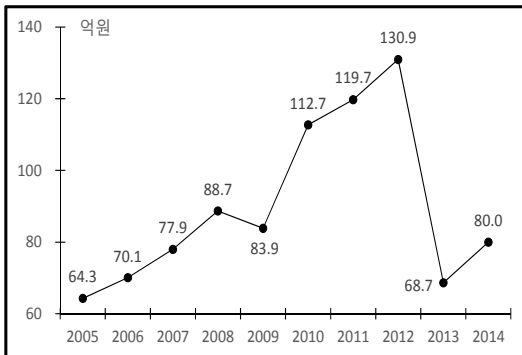
<그림 3-3> 1기업당 자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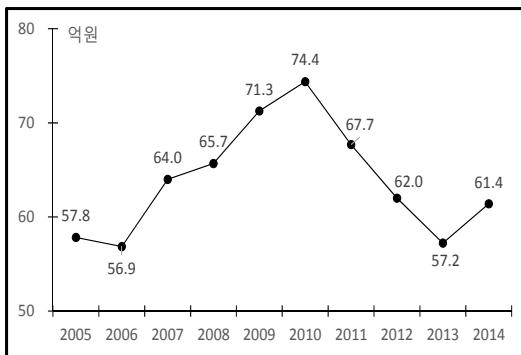
<그림 3-4> 1기업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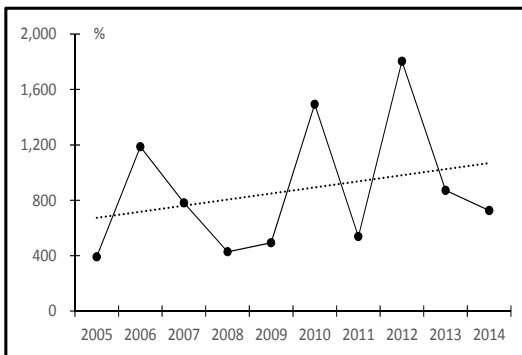
<그림 3-5> 1기업당 수출액



<그림 3-6> 1기업당 영업이익



<그림 3-7> 평균부채비율





## 제 4 장

---

### 분석모형과 실증분석

---

제1절 분석모형과 변수

제2절 실증분석 결과

---



## 제 4 장 분석모형과 실증분석

### 제1절 분석모형과 변수

#### 1. 분석모형 설정

##### 1) 로짓모형(Logit Model)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규모로의 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상위 기업규모로 이동하는 경우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기업특성 요인 등을 고려하여 어떤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규모군이 상위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이항변수로 구체화하여 로짓모형(logit model)을 추정하기로 한다. 로짓모형 추정방법은 본 분석과 같이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즉,

$$y_{it}^* = \alpha + \beta x_{ij} + u_i + e_{it} \quad (1)$$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2)$$

식(1)에서  $y_{it}^*$ 는 관측되지 않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관찰이 가능한  $y_{it}$ 는 계층이동 여부에 대한 범주임. 이러한 특성을 갖는  $y_{it}$ 는 일반일반적으로  $y_{it}^* > 0$ 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다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식(1)의

표준적인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을 통해  $\beta$  그리고  $\beta$ 의 추정치벡터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이때  $y_i = 1$ 일 확률은 (3)과 같이 구해진다.

$$P_i = \text{Prob}(y_i = 1) = \text{Prob}[u_i > -(\beta_0 + \sum_{j=1}^k \beta_j X_{ij})] \quad (3)$$

$$= 1 - F[-(\beta_0 + \sum_{j=1}^k \beta_j X_{ij})]$$

F는 오차항  $u$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만6일  $u$ 가 대칭적(symmetric)이라면,  $1 - F(-Z) = F(Z)$ 이기 때문에 (3)의 식은 (4)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P_i = F[(\beta_0 + \sum_{j=1}^k \beta_j X_{ij})] \quad (4)$$

이때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L = \prod_{y_i=1} P_i \prod_{y_i=0} (1 - P_i)$ 과 같이 쓸 수 있으며,  $u_i$ 의 누적분포가 로지스틱분포를 갖는다면,

$$P_i = F(Z_i) = \frac{\exp(Z_i)}{(1 + \exp(Z_i))} \text{이므로, 다음과 같은 우도함수를 만들 수 있음.}$$

$$L = \prod_{y_i=1} \frac{\exp(Z_i)}{1 + \exp(Z_i)} \prod_{y_i=0} \frac{1}{1 + \exp(Z_i)} \quad (5)$$

이때 구해진 회귀계수가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계수가 된다.

## 2) 변수 설명

###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y_{it}$ 는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시점에서 향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이행한 이행변수를 사용하였다. 첫째, 2005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중소기업이었으나 2005년부터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여 2014년 현재 중견·대기업인 계속 중견기업인 경우를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하는 변수이다. 둘째 2005년 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2014년 현재 중견기업인 신규 중견기업인 경우를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하는 변수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단위에서 2005~2011년 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한 기업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이동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여기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중소기업에서 1번 이상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었으나 2014년 중소기업에 잔류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결국, 실증분석은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이행해가는 기업을 구체적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방식으로 이행변수를 만들었다. 하나는 한번 중견기업이면 영원한 중견기업이라 하여 만든 계속중견기업 표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분석기간 동안 매년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이행해 가는 중견기업이라 하여 만든 신규중견기업 표본이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 변화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는 기업특성변수인 기업나이인 업력, 규모변수인 종업원수와 자본금, 성장성변수인 매출액과 수출액, 수익성변수로 영업이익, 안정성변수로 부채비율, 기술력변수로 연구개발투자비 대신 교육훈련비를 고려하였고, 산업변수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부문	독립변수	설명
업력	업력	2005-창업연도
기업규모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성장성	수출액 (수출비율)	백만원 (수출비율=수출액/매출액)
	매출액	백만원
수익성	영업이익	백만원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기술력	교육훈련비	백만원
산업더비	제조업과 비제조업	제조업=1, 비제조업=0

## 2. 이용자료의 기술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NICE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재무데이터 자료인 KISVALUE 자료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외부감사를 받은 대전지역 기업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업력과 규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력 등 경영지표를 활용하였다. 활용한 지표들의 통계적 및 기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료 표본 특성

전체 표본은 2005년 231개 기업에서 2014년 374개 기업이며, 10년간 매년 기업표본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10년간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행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역시 10년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현황을 보면, 2005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이미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은 11개이며, 신규중견기업의 경우 2005년 12개 기업에서 시작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가운데 2014년 36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분석의 시작 시점인 2005년 중소기업이었고 종료시점인 2014년에도 중소기업이었으나 중간 어느 시점연도에 중견기업을 경험한 기업은 2007년 1개 기업,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2개 기업, 2012년과 2013년 각각 1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이용자료의 표본 특성

(단위 : 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231	247	253	269	292	307	326	342	359	374
중소기업	208	222	225	240	257	269	285	300	316	327
계속중견기업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신규중견기업	12	14	17	18	24	27	30	31	32	36
신규 중견기업	12	14	16	16	22	25	28	30	31	36
중견기업 경험기업	-	-	1	2	2	2	2	1	1	-

## 2) 기술통계적 특성

실증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평균업력은 2005년 이전에 이미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계속중견기업이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평균종사자수는 계속중견기업은 2005년 이후 기업체수가 동일한 가운데 점차 증가하고 있

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의 경우는 규모가 작았던 중소기업이 매년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평균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기업당 자본금을 나타내는 평균자본금 역시 계속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규모가 작았던 중소기업의 매년 신규 진입에 따라 평균자본금의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평균매출액, 평균수출액, 평균영업이익 등도 비교적 규모가 적었던 중소기업이 매년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신규중견기업은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의 증감 변화가 없는 계속중견기업의 경우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평균수출액의 경우 계속중견기업도 2013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14년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중견기업의 평균영업이익도 200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부채비율은 2007년까지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간 다소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격차가 매우 소폭인 가운데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교육훈련비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계속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규중견기업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군 모두 평균교육훈련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향후 종업원의 숙련도 축적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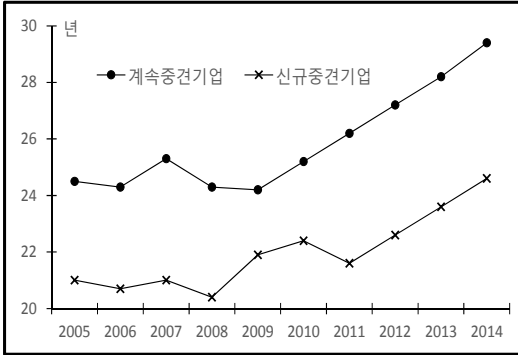
<표 4-2> 계속증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연도	평균업력 (년)	종업원수 (명)	자본금 (십억)	매출액 (십억)	수출액 (십억)	영업이익 (십억)	평균부채비율 (%)	교육훈련비 (십억)
2005	24.5	9,653	1,299	5,516	1,331	976	719.1	10.3
2006	24.3	10,449	1,549	6,367	1,485	1,107	96.7	10.1
2007	25.3	10,480	1,556	7,177	1,651	1,299	111.3	12.7
2008	24.3	11,489	1,575	8,528	1,943	1,498	234.7	11.8
2009	24.2	11,744	1,640	8,666	1,771	1,462	156.9	9.5
2010	25.2	11,427	1,640	9,007	2,253	1,432	147.2	13.0
2011	26.2	12,345	1,641	9,602	2,576	1,396	137.1	10.3
2012	27.2	12,684	1,640	9,744	3,004	1,410	143.0	9.0
2013	28.2	11,260	1,651	9,708	1,026	1,246	137.5	7.2
2014	29.4	13,333	1,635	9,886	1,130	1,329	119.1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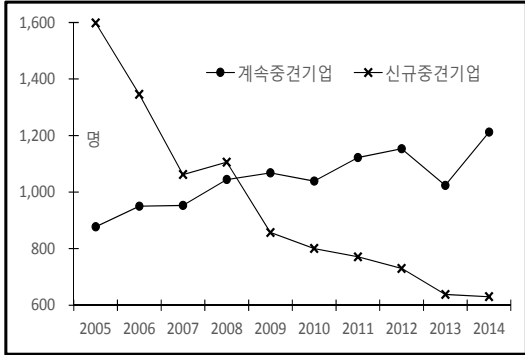
<표 4-3> 신규증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연도	평균업력 (년)	종업원수 (명)	자본금 (십억)	매출액 (십억)	수출액 (십억)	영업이익 (십억)	평균부채비율 (%)	교육훈련비 (십억)
2005	21.0	19,179	2,582	8,626	1,331	1,141	222.5	11.6
2006	20.7	18,836	2,006	7,808	1,524	1,184	288.5	10.5
2007	21.0	18,054	2,024	10,263	1,751	1,331	257.6	13.7
2008	20.4	19,907	2,048	11,891	2,162	1,445	187.6	13.4
2009	21.9	20,569	2,076	10,977	2,088	1,618	148.0	10.6
2010	22.4	21,609	2,462	13,794	2,874	1,674	149.1	14.9
2011	21.6	23,132	2,571	15,646	3,253	1,649	164.1	12.3
2012	22.6	22,628	2,576	15,999	3,773	1,588	131.5	11.7
2013	23.6	20,413	2,592	16,589	1,933	1,495	126.7	9.6
2014	24.6	22,677	2,599	16,992	2,103	1,572	133.1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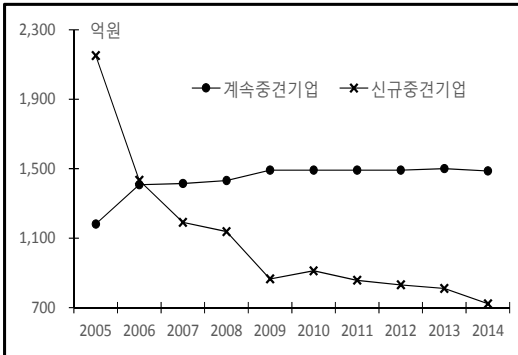
<그림 4-1> 평균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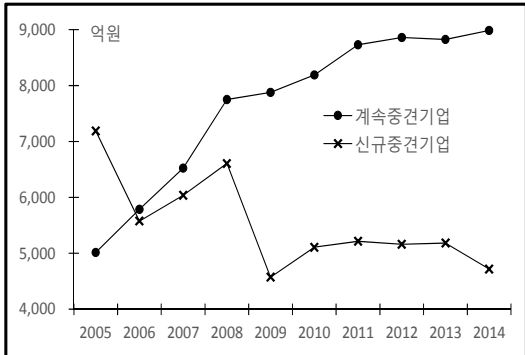
<그림 4-2> 평균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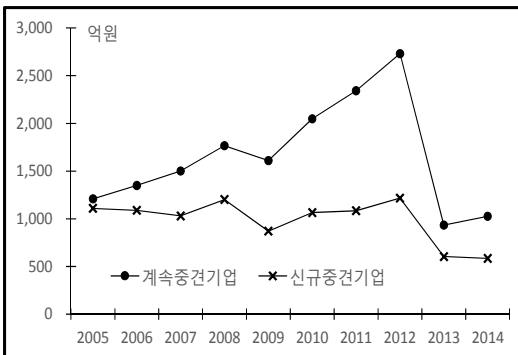
<그림 4-3> 평균자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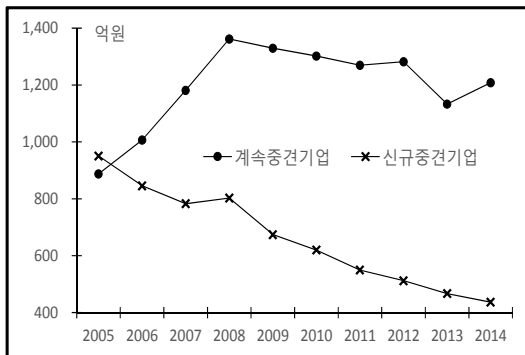
<그림 4-4> 평균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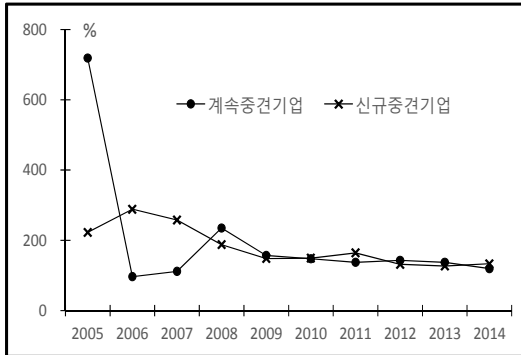
<그림 4-5> 평균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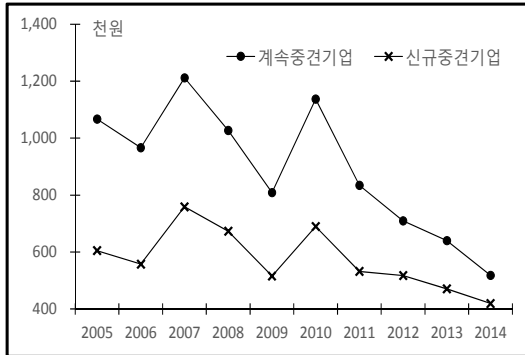
<그림 4-6> 평균영업이익



<그림 4-7> 평균부채비율



<그림 4-8> 평균교육훈련비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대기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기업의 업력, 규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력 등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위에서 검토한 기업의 업력, 규모변수로 종업원수와 자본금, 성장성변수로 매출액과 수출액, 수익성 변수로 영업이익, 안정성변수로 부채비율, 기술력변수로 교육훈련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더미변수를 고려하였다.

### ① 업력

대전지역에서 2005년 이전부터 중견기업에 속한 계속중견기업들은 대체로 기업의 성장과 업력과의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한편,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력이 높은 기업보다 업력이 낮은 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Jovanovic(1982)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신생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의미인데, Evans(1987)의 주장 역시 기업의 업력과 성장과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입증한바 있다. 기업의 업력이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률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정호(2004)의 연구는 일찍이 본 연구와 같이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성장속도와 업력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이전부터 대전지역 중견기업이었던 기업은 오랜 기간 지역에서 퇴출되지 않은 기업들로서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② 규모 : 종업원수, 자본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기업 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수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 모두 대체로 음(-)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본금은 계속중견기업의 경우 음(-)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규중견기업의 경우 대체로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차이를 보이지

<표 4-4>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계속중견기업(1)

구 분		(1)	(2)	(3)
상수		-24.534 *** (1.818)	-25.96 *** (1.660)	-30.07 *** (1.404)
업력		0.1986 *** (0.060)	0.2029 *** (0.058)	0.3686 *** (0.057)
규모	종업원수	-0.0055 ** (0.003)	-0.0091 *** (0.003)	
	자본금	-0.0000 *** (0.000)		0.0000 *** (0.000)
성장성	매출액	0.0000 *** (0.0000)	0.0000 *** (0.000)	
	수출비율	0.0000 (0.000)		0.000 (0.000)
수익성	영업이익	0.0000 ** (0.000)	0.0000 ** (0.000)	0.0000 * (0.000)
안정성	부채비율	-0.0033 (0.067)	-0.0090 (0.068)	-0.0004 (0.021)
기술력	교육훈련비	0.017 * (0.009)	0.0146 (0.009)	0.0095 *** (0.002)
산업더미	제조업	N	N	N
Log Likelihood		-32.34	-35.27	-41.94
관측치		2767	2768	2768

주 : ( )안은 Standard Error값.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성장과 규모간의 분석결과는 전통적인 이론에서와 같이 모든 기업들이 U자 모향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규모간에 음(-)의 상관관계는 최적규모 영역 근처에 있는 대전지역 계속증견기업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인 반면, 최적규모 영역 아래에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이 신규증견기업으로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란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다.

<표 4-5> 중소기업에서 증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계속증견기업(Ⅱ)

구 분		(4)	(5)	(6)
상수		-27.59 *** (1.154)	-25.71 *** (1.637)	-33.38 *** (1.257)
업력		0.2120 *** (0.061)	0.1774 *** (0.062)	0.4299 *** (0.059)
규모	종업원수	-0.0060 * (0.003)	-0.0098 *** (0.004)	
	자본금	-0.0000 *** (0.000)		0.0000 *** (0.000)
성장성	매출액	0.0000 *** (0.000)	0.0000 *** (0.000)	
	수출비율	-0.0000 (0.000)		0.0000 (0.000)
수익성	영업이익	0.0001 ** (0.000)	0.0001 ** (0.000)	0.0001 *** (0.000)
안정성	부채비율	-1.1855 (2.364)	-0.3976 (1.217)	0.0000 (0.009)
기술력	교육훈련비	0.0206 * (0.011)	0.0149 (0.010)	0.0120 *** (0.002)
산업더미	제조업	0.6049 (3.516)	0.4209 (8.533)	-2.0433 (1.921)
Log Likelihood		-26.91	-31.59	-35.45
관측치		1930	1931	1931

주 : ( )안은 Standard Error값.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러한 추정결과는 대전지역의 계속중견기업들은 어느 정도 최적규모에 도달한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아직 최적규모에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면서 성장을 위해 자본금 보유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6>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1)

구 분		(1)	(2)	(3)
상수		-14.91 *** (0.827)	-13.42 *** (0.969)	-17.71 *** (2.572)
업력		0.0264 (0.054)	0.0169 (0.048)	0.1587 (0.123)
규모	종업원수	-0.0033 ** (0.001)	-0.0011 (0.001)	
	자본금	0.0001 *** (0.000)		0.0003 *** (0.000)
성장성	매출액	0.0000 *** (0.000)	0.0000 *** (0.000)	
	수출비율	0.0000 (0.000)		0.0001 (0.000)
수익성	영업이익	-0.0001 *** (0.000)	-0.0001 ** (0.000)	0.0000 * (0.000)
안정성	부채비율	-0.044 (0.078)	-0.0564 (0.082)	-0.0664 (0.154)
기술력	교육훈련비	0.0020 (0.006)	-0.0061 (0.005)	0.0014 (0.002)
산업더미	제조업	N	N	N
Log Likelihood		-102.03	-107.86	-107.43
관측치		2407	2407	2768

주 : ( )안은 Standard Error값.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③ 성장성 : 매출액, 수출비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이행하는데 매출액 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 모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차이도 없다.

<표 4-7>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분석결과 : 신규중견기업(Ⅱ)

구 분		(4)	(5)	(6)
상수		-32.93 *** (1.466)	-23.92 *** (1.316)	-15.35 *** (1.633)
업력		0.0491 (0.051)	0.0418 (0.063)	0.1250 *** (0.037)
규모	종업원수	-0.0060 *** (0.002)	-0.0016 (0.001)	
	자본금	0.0002 *** (0.000)		0.0002 *** (0.000)
성장성	매출액	0.0002 *** (0.000)	0.0001 *** (0.000)	
	수출비율	0.0000 (0.000)		0.0000 ** (0.000)
수익성	영업이익	-0.0003 *** (0.000)	-0.0002 ** (0.000)	0.0000 (0.000)
안정성	부채비율	-0.0474 (0.121)	-0.0421 (0.085)	-0.1141 (0.120)
기술력	교육훈련비	0.0019 (0.011)	-0.0093 (0.008)	0.0033 ** (0.002)
산업더미	제조업	10.959 *** (1.411)	6.5403 *** (1.731)	0.7061 (1.342)
Log Likelihood		-86.42	-75.95	-77.29
관측치		1716	1716	1931

주 : ( )안은 Standard Error값.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매출액 성장이 영업이익과 같은 직접적인 수익성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익성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의 확대는 기업성장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한 결과,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갖지 않고 있다. 수출활동이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전지역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수익성(영업이익)과 안정성(부채비율)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영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대체로 수익성과 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비율을 가질 것이며 수익성이 높을수록 낮은 부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면, 기업 성장과 영업이익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부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익성의 지표로 선택한 영업이익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이행하는데 계속중견기업은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계속중견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의 확대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으로 안정적 단계의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에 중소기업으로부터 성장 이행한 신규중견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 단계에 있는 계속중견기업보다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견기업과 같이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보다 경

영 다각화에 의한 다양한 금융조달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채권의 차입에 대한 자본비용도 저렴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진입할수록 높은 부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부채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전지역 중견기업들은 부채비율의 추정계수가 매우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지역 중견기업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⑤ 기술력 : 교육훈련비

기술력을 가장 대표하는 변수는 연구개발비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표본에서는 연구개발비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변수로서 교육훈련비를 사용하였다.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종업원의 숙련도는 노동생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훈련비 투입에 의한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 숙련도 축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발휘하는 기업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박연숙, 2007).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계속중견기업의 경우 대체로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규중견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속중견기업은 교육훈련비 투입 증대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중견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의 경우 성장을 위한 요소투입 중에서 교육훈련비 투입에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제 5 장

---

###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

---

제1절 연구결과

제2절 정책방향

---



## 제 5 장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

### 제1절 연구결과

지금까지 앞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10년간 대전지역 기업의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를 보면, 첫째, 대전 전산업의 전체 증가업체 중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별로는 1~4명 규모의 소기업이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수 대부분이 1~4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성비는 대기업에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1~4명 규모에서 2.51%p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제조업 전체 증가업체 중 중소기업이 99.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별로는 1~4명 규모와 5~9명 규모의 소기업이 각각 51.2%, 40.0%로 91.2%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사업체수 대부분이 1~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성비는 대기업에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1~4명 규모에서 3.17%p 크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대전지역 기업의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를 보면, 첫째, 전산업 전체 종사자수 변화에서는 사업체수 변화에서와 같이 사업체가 적은 규모일수록 종사자수 증가가 큰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성비는 주로 중기업과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둘째,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 변화 역시 사업체수 변화에서와 같이 사업체가 적은 규모일수록 종사자수 증가가 큰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성비는 주로 중기업과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제조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셋째, 기업당 평균종사자수 변화를 보면, 전산업의 평균 종사자수 0.59명 증가,

제조업은 0.63명 증가하였으며, 규모별로는 전산업은 대기업 41명 증가, 중기업 0.72명 감소, 소기업 0.23명 증가, 중소기업 전체로는 0.43명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대기업 28.8명 증가, 중기업 0.28명 감소, 소기업 0.26명 증가, 중소기업 전체로는 0.45명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규모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에 이용한 KISVALUE Data의 계속 및 신규중견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특성을 보면, 먼저 평균업력은 2005년 이전부터 계속중견기업이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평균종사자수는 계속중견기업은 2005년 이후 기업체수가 동일한 가운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의 경우는 규모가 작았던 중소기업이 매년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평균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둘째, 평균자본금은 계속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규모가 작았던 중소기업의 매년 신규 진입에 따라 평균자본금의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평균매출액, 평균수출액, 평균영업이익 등은 비교적 규모가 적었던 중소기업이 매년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신규중견기업은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의 증감 변화가 없는 계속중견기업의 경우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평균수출액의 경우 계속중견기업도 2013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14년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중견기업의 평균영업이익도 200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평균부채비율은 2007년까지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간 다소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격차가 매우 소폭인 가운데 2014년까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고, 평균교육훈련비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계속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규중견기업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군 모두 평균교육훈련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종업원의 숙련도 축적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 사실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2005년 이전부터 중견기업이었던 계속중견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업력과 양(+)<sup>1</sup>의 유의한 영향력 관계,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들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5년 이전부터 중견기업이었던 기업이 오랜 기간 대전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이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자본금은 계속중견기업은 성장과 음(-)의 영향, 신규중견기업은 양(+)<sup>2</sup>의 영향을 각각 미치고 있다. 대전의 계속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최적 규모에 도달해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아직 최적규모에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면서 성장을 위해 자본금 보유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매출액 성장이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양(+)<sup>3</sup>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전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비율 확대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전지역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영업이익은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계속중견기업은 정(+)<sup>4</sup>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영업이익이 확대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으로 안정적 단계의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경영활동 지속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은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채비율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부호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큰 중견기업은 신뢰도가 높고 자본조달이 용이하여 자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하여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져 부채비율과 양(+)<sup>5</sup>의 관계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전 중

견기업들은 부채비율과 추정계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석결과로 볼 때, 대전지역 기업은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교육훈련비는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계속중견기업은 양(+)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계속중견기업은 교육훈련비 투입 증대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중견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이 경우 기업 성장을 위한 요소투입 중에서 교육훈련비 투입에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외부감사를 받는 지역기업의 KISVALUE Data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한 표본이 많지 않은 표본수의 제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술력의 지표인 연구개발비를 KISVALUE Data에서 확보하기 어려워 대리변수로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2010년 초반기까지는 연구개발비를 입수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입수하기 어렵다. 물론 기술력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연구개발비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훈련비가 기술력과 전혀 무관한 지표는 아니기도 하다. 교육훈련에 의한 종업원의 숙련도 향상에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박연숙, 2007)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기간(2005~2014) 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한 정성분석(사례조사 등)이 추가되면 좀 더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제2절 정책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이 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장동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업력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 성장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기업은 업력이 낮은 기업보다 업력이 높은 기업보다 중견·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고 경영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존립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업에서 도약·성장기 중소기업이 흔히 겪게 되는 2차 3차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업원수나 자본금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 성장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대전지역의 계속중견기업들은 전통적인 이론에서와 같이 U자형 장기평균비용곡선에서 최적규모 영역 근처에 있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들은 최적규모 영역 아래에 있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의 경영이익 축적을 통하여 자본금 규모를 확장하게 하거나 비용절감이나 생산효율화를 통해 최적규모 영역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수익성이나 성장성 등 관련 경영지표 등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매출액 성장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 성장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액 성장을 위한 판매촉진과 마케팅 등의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활동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역 제품 해외 제품설명회 개최 확대, WTA 등을 통한 지역기업이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국제 무역 및 통상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는 최근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규중견기업으로 이행 성장한 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단계에 있는 계속중견기업보다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채비율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중견기업들은 부채비율의 추정계수가 매우 낮고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볼 때, 기업의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영다각화에 의한 다양한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채권의 차입에 따른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종업원의 교육훈련비가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계속중견기업은 교육훈련비 투입 증대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중견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중견기업이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숙련도 향상과 노동생산성이 증대될 있도록 종업원당 교육훈련비를 일정비율 부문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수토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영세 규모의 소기업은 기존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만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육 받는 기간만큼 임시 인력지원이나 전문가 집단의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희(2013), 「대전 중소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분석 - 제조업체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02.
- 김기희·이승복·박동화(201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성장을 위한 R&D지원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은행, 한국은행 지역본부 논문집(1), 2013년 통권 제3호, 2013.12.
- 김선화·서정대(2009), “중소기업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31권2호, 2009.6, 239~238쪽.
- 김정호·김민서(2014),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 경영학연구, 43, 1787-1812쪽.
- 박상문·윤현진(2012),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서장 영향요인 연구 : 중소기업 유예기간 대상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년 제14회 경영관련학회 통합, 2012.
- 박연숙(2007),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 요인과 특성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기본과제 07-17, 2007.12.
- 성효용(2000), “기업 성장률과 규모 및 나이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조직연구 제8집 제2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00, 71~85쪽
- 안세현·이용민(2012),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추정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대전충남 2012-4, 2012.5.
- 엄부영 외 2명(2014), 「기업 성장 친화적 법령정비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14-05. 2014.
- 이병기(2013),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3-06, 2013.7.
- 장정호(2004), “기업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충북연구원, 「충북개발연구」, 제15권 제2호, 2004, 79~96쪽.
- 정진하(2005),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95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 홍석일(2012),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요인 및 특성 분석 - 소기업의 중기업으로의 성장경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629, 2012.12.
- Audretsch, D. B., L. Klomp, E. Santarelli, and A. R. Thurik(2004), “Are the Service Different?,”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24, pp.301~324.
- Baily M. N. and D. Farrell(2006), “Breaking Down Barriers to Growth,” *Finance and*

- Development*, Vol.43, No.1, pp. 1-9.
- Coad, Alex.(2007), Empirical Investigations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the Growth of Firms, April 2007.
- Davis, S. J., J. Haltiwanger, R. Jarmin, and J. Miranda.(2006), "Volatility and Dispersion in Business Growth Rates : Publicly Traded versus Privately Held Firms," NBER working paper 12354.
- Evans, D. S.(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growth, size and age : estimates for 100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35, No.4.
- Gibrat, R.(1931). *Les Inegalites Economiques*. Paris : Librairie du Recueil Sirey.
- Jovanovic, B.(1982),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Vol.50, pp.649-670
- Lu and Beamish(2006), "SME internationalization and performance : growth vs. profita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4, pp.27-48.

기본연구보고서 2016-01

---

## 대전지역 중소기업 성장동인 분석과 정책방향

---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나은문화사 TEL.042-252-4103 FAX.042-252-4104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